

제주사회복지신문

>2019년 2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36호

2019년 달라지는 제주도에 사회복지시책

장애인 등급제 폐지된다

올해 제주도에 다양한 사회복지시책이 개선되고, 도민 건강관리·장애인 자립이 지원되는 등 사회안전망이 강화된다. 이에 아동·보육, 여성·가족,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생활보장 등의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편집자 주>



<장애인분야>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지원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다.

기존 장애인등급을 1~6단계로 구분하여 등급별 서비스가 제공되던 것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나눠 제공된다.

더불어 장애인의 안정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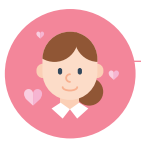
삶을 위한 새로운 시책이 추진된다.

전국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65만원까지 인건비가 지원된다.

또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이 신규 지원된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중 결혼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1인당 1000만원이 지원된다.

이밖에도 ▲중증 실종장애인 위치 알림이 보급사업 ▲1급 장애인 수당 추가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이 확대되거나 새롭게 시행될 계획이다.



<여성·가족 분야>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저소득·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가 아동 1인당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되고, 지원연령도 만 14세 미만

서 만 18세 미만으로 완화된다.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도 아동 1인당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는데, 시간제 아

이돌봄의 경우 지원시간이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이하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80%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된다.



<노인 분야>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가 강화된다.

특히 서귀포시에서만 운영되던 노인 지원센터가 제주 시에도 추가로 설치되고, 사

회복지사 신규 채용을 통한 사례관리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기존 정부, 자치단체 등에서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제외되었던 노인

고용촉진장려금도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사회보험' 등을 지원받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홀몸어르신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에너지 드림사업 등도 지속 추진된다. 4면에서 계속



▲ 지난달 15일 협의회 삼다수홀에서 개최된 '기해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에서 축하 시루떡 컷팅식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성황

'기해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가 지난 15일 협의회 회관에서 개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주최한 이날 신년인사회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위성곤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년인사회는 신임 시설장 인사, 내빈들의 새해 인사말씀, 제9회 명예의 전당 등재자 시상, 참가자 교례, 축하 시루떡 컷팅식과 축배, 경품권 추첨, 떡국 오찬으로 이뤄졌다.

고치환 회장은 "사회복

지인 신년인사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올 한 해 제주도내 사회복지가 질적·양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복지계가 다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원희룡 도지사는 "2019년은 전체 예산의 21.4%를 차지하는 1조1326억원이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됐다"며 "더 시급하고 절실한 곳에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들이 복지혜택을 바라는 도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제주도의 갈등 현안들을 치유하는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8면

지면소개

- 신년메시지 2·3면
사회복지직능단체장 신년사
- 특집 7면
2019년도 제1차 제주사회복지포럼
- 사회복지소식 4면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완화
- 사회복지소식 8면
"봉사는 뭘 수 없는 삶의 일부예요"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또다른 '나눔' 입니다

장애인 생산품에는 남다른 정성과 땀의 결실이 담겨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구매를 바랍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명	판매 제품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생산품	702-146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명	생산 제품	연락처(사무실)
길직업재활센터	세탁업, 위생물수건, 종이컵 등	796-5777
어울림터	간장, 된장, 고추장, 양초 등	732-0295
에코소랑	화장지류, 발효과실원, 천연허브제품 등	732-2288
엘린	청소용역, 숙박업(엘린호텔) 등	752-2299
일배움터	화훼 및 농산물(각종화훼, 카페(플로베)사업)등	723-9104
춘강장애인근로센터	복사용지류, 재제조 카트리지, 세탁업, 섬유제품류 등	702-7851
평화의 마을	육가공류(소시지, 스테이크, 돈가스, 햄 등)	794-6277
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과, 제빵(빵류, 쿠키류, 케이크류) 등	799-9225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수막, 상패, 도자기, 각종판촉물 등	783-9920
희망나래일터	인쇄업, 쇼핑백, DM발송, 문서화일류 등	751-5152

사회복지직능단체장 신년사

새해를 맞아 제주지역 직능별 사회복지 단체장들의 신년사와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신는다.(단체별 가나다순)<편집자 주>

고 명 희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장



여성인권 실현을 위한 활동에 정진

반갑습니다.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회장 고명희입니다.

저희 협의회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 쉼터, 여성자활 등 16개 기관이 함께하고 있으며, 여성폭력 방지와 관련한 캠페인 및 예방교육 등을 주요활동으로 지역사회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예방교육' 사업을 통해 도내 사회복지 기관의 임직원 및 이용자, 입소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제주지역 사회복지기관과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작은 물결이 큰 파도를 일으키는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로 여성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자합니다.

2019년 사회복지를 위해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건강과 축복이 있는 기해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 은 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



인권강사 양성과정 개설 운영

황금돼지해 복 많이 지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지 현장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커뮤니티 케어, 탈시설,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 등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자 인권강화, 개인별 욕구 서비스제공,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존중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올 한해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와 함께 이용자들의 사람다운 삶을 지원하는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열악한 인력난과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주시설 중심의 인권교육에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의 지원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사람중심 가치에 기반을 둔 친인권적인 개별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 한 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안 명 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아동정책 활발한 논의 기대

2019년 정부 예산안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노년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아동은 우리 모두의 일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늘 궁금하고 답답했습니다.

경쟁사회에서 시들어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결국 우리 모두가 내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조금 더 낫기를 바라는 마음 결국 내 아이가 경쟁에서 우위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에 '한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는 명제에 동의는 하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레 의심해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아동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입니다.

부디 2019년은 아이들과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 민 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협의회장



청소년복지 원스톱체계 구축 필요

쉼터가 법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된지는 얼마되지 않아 사회복지사로서나 사회복지시설로서는 후발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서비스 대상자들이 청소년이다 보니 직원들도 활동적이고 도전정신과 열정이 가득하여 금새 따라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쉼터는 청소년복지시설로 제주에는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청소년복지시설인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201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앞으로 여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설치되기를 희망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치료형 쉼터가 제주에 설치된다면 청소년복지의 원스톱체계가 갖추어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019년 황금돼지띠 해를 맞아 기존 시설만의 발전이 아닌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의 확충과 위기청소년들 그리고 직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제주사회복지현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김 성 자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제주지회장



노숙인에 대한 편견 없애는데 주력

새로운 희망과 계획을 세우게 되는 한 해가 밝았습니다.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는 사회복지 흐름 속에 아직도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이 많습니다.

노숙인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들의 외로움과 아픈 사연을 들어주고 공감 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제주지회에서는 그들의 이러한 욕구에 공감하며 지역사회에서 노숙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노숙인을 희망가족이라 칭하며 그들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사회적 가족이 되기 위해 거듭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가족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올해도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윤 보 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지역사회재활시설 구심점으로 역할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올 한해도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의 열정으로 따뜻한 복지를 나누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환경이 급변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장애인복지관도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사회 대표적 지역사회재활시설로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장애인복지관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및 연수 사업을 전개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확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사회복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직능단체장 신년사

이 홍 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도협회장

장애인의 평범함 삶 위한 사업 추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회복지 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다사다난했던 ‘무술년’을 보내고 2019년 ‘황금 돼지의 해, 기해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깊게 뿌리 내린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제한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삶을 보통 사람들의 삶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장애인예능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연수회 등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향상 및 화합의장을 마련함으로써 늘 앞장서는 협회가 될 것입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과 ‘돼지’가 함께 어우러진 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행운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더욱 풍요로워질 삶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황금 돼지의 해를 맞아 사회복지 가족여러분의 목표하시는 일 모두 이루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한 봉 금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근로장애인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

우리나라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안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경기악화와 계속된 임금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전국적으로 집회,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는 아직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게 최저 임금 보전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제주직업재활시설 300여명의 근로장애인들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제주직업재활시설에서도 수익과 고용이 안정적인 구도로 갈 수 있도록 정진해서 근로장애인들이 임금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지역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 구매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 정 해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제주지회장

공생, 공존, 소통의 연결고리 될 것

2019년 한 해도 사회복지인이 하나 되어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상을 이루기 위해 세운 각자의 꿈과 결단들이 실현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장의 미담으로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바탕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가 사람다움과 사회다움을 이루기 위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가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좀 더 가치 있는 일들에 정진하는 상생과 배려의 노력들이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합니다.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제주지회에서는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일하는 관계에만 머물지 않고, 함께 ‘동료’로서의 관계로 눈높이를 맞추고,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공생, 공존, 소통하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존중하는 한 해, 경쟁보다 배려하는 한 해, 다가오는 귀중한 순간순간을 슬기롭게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상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작은예수의집 장애인의 생활과정 사례 소개

자리매김

허경수씨와 진해생 선생님 이야기

경수씨는 한잔의 믹스커피와 둥근 공 모양의 물건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듯한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식당한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던 어느 날.

식사를 준비하는데 식판과 수저, 젓가락 등을 같이 놓아주며 싱긋이 웃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나는 너무 감격해서 얼싸 안아 주고 “경수씨가 입주자들의 식판을 놓았어요!”라고 만나는 직원마다 자랑했습니다.

그 이후 그릇에 밥을 떠서 입주자의 이름을 말해주면 가끔 실수는 하지만, 대부분 입주자가 앉아 식사하는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조리사에게 식사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2층에 알리라고 수화기도 들어줍니다.

처음, 식당에 내려와 냉장고 앞 의자에 앉아 비켜주지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 때마다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야 하니 비켜 달라고 부탁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지금은 식재료 꺼내려고 냉장고 앞에 가면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 비켜줍니다.

식당을 청소 할때는 끝날 때까지 청소에 방해

장애인거주시설 서귀포작은예수의집(원장 윤주영)은 시설 직원들이 입주 장애인들과 생활하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풀어낸 ‘웃는 얼굴과 사랑의 말’을 펴냈다. 이 가운데 장애인 허경수씨의 생활과정 사례를 실는다.<편집자 주>

가 되지 않게 자리를 이동해 기다려 줍니다.

이제는 상황에 따라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알고 처신도 알맞게 하십니다.

식자재 창고에서 굴을 가져오기도 하고, 우유가 오면 냉장고에 넣기도 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스스로 열심히 합니다.

요즘은 아침식사 준비시간에 주방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왜 안 오지?’고 기다려 질 정도입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 조리사가 처음으로 혼자 식사준비를 하며 당황해 할 때도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신입 조리사가 식사준비를 다 하고 입주자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자, 보다 못한 경수씨가 수화기를 들며 2층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직원들이 경수씨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경수씨는 봄날 아지랑이 같이 아른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스며들더니 지금은 우리 영양관리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1월 식품기탁자

▲금강축산유통=축산물149kg ▲유진상사=오투기식품2,026개 ▲(주)쿵스토퍼 제주이도점=제빵230봉 ▲나눔베이커리=제빵100봉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229모 ▲금산서당골=자투리고기94kg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73개 ▲또아식방=식빵121봉 ▲모양=빵277개 ▲미인빵=빵86봉 ▲비엔누아즈=빵272봉 ▲빠라빠빵=빵11개 ▲손뜻모아봉사회=참기름80병 ▲정필이오메기=떡60개 ▲제주보리촌=보리빵605개 ▲참새방앗간=떡679개 ▲제주농연=망고젤리432개 ▲파파무베이커리=빵82봉

•기탁문의: 사랑나눔푸드마켓 •문의전화: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8년 12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610,000	2,520,000
난치병환아후원	40,000	0
자원봉사후원	2,395,000	1,195,000
복지사업후원	1,010,000	419,460
푸드마켓후원	3,080,000	261,26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달라지는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책

☞ 1면에서 계속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완화



<아동·청소년 분야> 사회안전망 강화

아동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먼저 입양 축하금과 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이 신규 지원된다.

입양 축하금은 일반아동의 경우 500만원, 장애아

동의 경우 700만원이 지원되고 입양아동에게는 연 6만5000원의 상해보험 가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6만6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학용품비는

5만원에서 7만1000원으로 오른다. 중·고등학생은 부교재비가 10만5000원에서 20만9000원으로, 학용품비가 5만7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도 도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전면 무상급식,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도 이뤄진다.



<생활보장 분야> 도민건강관리 사업 추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폐지·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만 30세미만 한 부모가구, 보호종료 아동)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이 폐지된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는 생계급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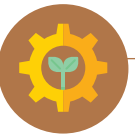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이 폐지되며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재산기준이 전년대비 40% 완화된다.

도민 건강관리 사업이 새롭게 추진·확대된다. 도민 정신건강검진비 신규 지원을 통해 급격한 사회변화

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을 무료 진단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정신건강검진을 원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지정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진이 가능하며, 5만원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지정 관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한다.



<사회복지 종사자 분야> 복지포인트 사업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가 개선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시범사업이

추진되는데, 제주도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도내 188곳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에게 근무 연수 10년 미만은 100

포인트, 10년 이상 200포인트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복지포인트는 체육·레저 시설 이용, 건강진단비, 자기계발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출판기념식 개최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석건)은 지난달 14일 이듬해봄 독립서점에서 지역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마을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책 '그때는 어땠나요, 그대는 어땠나요' 출판 기념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출판기념식은 구덕리 마을의 두 어르신과 그림 작가로 활동해 준 대정여고 학생 3명이 활동을 진행해 오며 느낀 소감을 함께 나눴다. 또한 어르신이 직접 책을 낭독하고 이를 들던 가족들은 눈물을 흘치기도 했다.

참여한 가족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부모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마을 어르신은 "책을 읽는 동안 그 옛 시절에 다녀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앞으로 활동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그림책 만들기는 지역 청소년들이 어르신의 옛 마을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정과 옛 어른들의 삶의 지혜, 정서를 담아 보존·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이 소통하며 서로의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오재선 어르신 1000만원 기탁



간접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오재선(78)어르신이 지난해 8월 무죄선고를 받고 정부로부터 받은 국가배상금 중 일부를 기부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

노인주거복지시설 제주양로원(원장 김진우)은 지난달 14일 양로원에서 생활하던 오재선 어르신이 퇴소를 앞두고 1000만원을 후원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오재선 어르신은 1986년 간첩혐의 누명으로 인해 옥살이를 하는 등 갖은 고초를

겪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이뤄진 과거사 재심 결과 32년 만에 무죄선고를 받으면서 선량한 국민으로서 명예를 되찾게 됐다.

제주양로원 관계자는 "오재선 어르신은 기탁금으로 제주양로원의 시설개·보수와 시설비 등을 통해 사용해 주길 바라며 제주도내 많은 어르신들이 이곳 생활을 통해 마지막 행복한 여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신청해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경희)은 2월부터 12월까지 복지관 강당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 교육은 표준교육으로 오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2월 8일부터 받는다. 2차는 전문교육으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는 4월 12일까지 하면 된다.

이어 3차 교육은 표준교육

으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접수일 6월 17일) 실시되고, 4차 교육은 전문교육으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접수일 9월 16일) 운영된다.

마지막 5차 교육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접수일 10월 28일) 진행한다.

정원은 50명이며 신청은 각 회차별 접수일 당일 복지관 홈페이지(www.jejurehab.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제주협의회 '영화보새나' 행사 성황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달 18일 메가박스 제주점에서 도내 사회복지현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영화보새나(영화 보며 새해 인사 나누는 날)' 행사를 진행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기해년 새해를

맞아 도내 사회복지 현장 근무자들이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고 영화 관람을 통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새해인사를 시작으로 단체사진 촬영, 영화 '말모이' 관람으로 진행됐다.

● 소/식/마/당

(무순)

식품키트 후원물품 전달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달 17일 학대피해 노인을 대상으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후원 물품인 식품키트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물품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 사후관리를 위해 기탁했으며 쌀, 김, 된장 등이 들어있다.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들에게 후원물품을 전달 할 예정이다.

화북동 독지가 성금 기탁



화북동에 거주하는 독지가 김상천 씨는 지난달 17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를 통해 성금 백만원을 화북동주민센터(동장 김행석)에 지정 기탁했다.

김 씨는 “본인이 과거에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화북동 지역내 거주하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성대학 여성지도자과정 수료식



제주시와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조문수)은 지난달 15일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2018학년도 제20기 제주시 여성대학 여성지도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 날 수료식은 여성대학 수료생과 여성대학 총동문회 임원, 대학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업우수자 및 논문발표 우수자에 대해 제주시장 표창 및 제주대학교 총장상을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직원연수회 개최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이사장 최영열)는 지난달 11~12일 누가빌리지에서 복지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제주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한 희망나래 직원연수회를 개최했다.

희망나래 산하 기관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고객의 만족을 위해 팀별 활동 및 혁신 사회복지시설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 등 다양한 과정으로 진행됐다.

수상금 기탁 '훈훈'



건입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미숙)는 지난달 9일 '2018 제주도 읍면동 맞춤형 복지 평가'에서 대상 수상금 50만원을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에 기탁했다.

건입동행정복지센터는 MOU를 통해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과 민관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등 건입동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도 건입동에 복지사각지대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물품 나눔 실천



탐모라봉사대(대장 고애심)는 지난달 3일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에 후원물품(애플, 스피커)을 전달했다.

탐모라봉사대는 정혜재활원을 방문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탐모라봉사대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눔 문화 활성화 노력



(주)시와월드(대표 우영진)는 지난 12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운영하는 제주광역푸드뱅크를 방문해 약 800만원 상당 이웃사랑 물품(음료, 핫팩)을 전달했다.

시와월드는 작년 11월, 제주광역푸드뱅크와 나눔 문화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향토문화 콘텐츠를 활용, 도내에 나눔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나눔문화 조성 앞장



화북동 동마을복지회(회장 고봉주)는 지난 12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를 통해 화북동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 등에 지원하도록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화북1동 동마을복지회에서는 약 10년 전부터 매해 연말을 맞이해 꾸준히 화북1동 동마을회 기금으로 성금을 기탁하는 등 나눔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웃사랑 물품 기부



울곡어린이집(원장 문정순)은 지난 12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운영하는 제주광역푸드뱅크를 방문해 43만원 상당 이웃사랑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한 물품은 울곡어린이집 아동들이 나눔장터를 열어 발생한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울곡어린이집은 매년 나눔장터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있다.

예술교육 프로젝트 운영



제주몽생이그룹홈(대표자 김완숙)은 지난 2018년 8~12월까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인 ‘그룹홈 아이들의 문화 배움을 통한 예술교육 프로젝트 자유인(자유롭게 두드리며 유연성을 기르는 문화 참여인)’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 소외가 되기 쉬운 취약계층 그룹홈 아동을 대상으로 풍물(8회), 예술문화탐방(1박 2일, 1회) 등으로 꾸며졌다.

민·군 협력 강화 추진



해군 제주시지 전대(전대장 대령 박성우)와 사회복지법인 춘강 어울림터(원장 조인석)는 최근 자매결연협약을 맺고 민·군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상호 우호와 친목도모에 힘쓰기로 했다.

해군제주시지전대는 올해로 10년 동안 어울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봉사활동과 후원을 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장김치 담그기 실시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최근 송죽원 체육관에서 전 직원 및 자원봉사자, 거주 장애인 보호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철 장애인들의 보약반찬이 되어줄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치는 500포기를 담갔다.

송죽원 관계자는 “이번 김장김치는 유수암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도 다함께 먹을 수 있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시론

평균수명보다 건강수명이 중요하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다른 것이 있다면 삶의 내용과 기간이다.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이다. 오랜 기간 병마에 시달리다 떠나기도 한다. 병실에 누워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다 떠나기도 한다. 나이를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 떠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우리네 삶은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마음만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정신과 몸의 병으로 이어진다.

질병 고통 속에 사는 삶 늘어

그럼에도 인간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나 질병의 고통 속에 사는 기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산다면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그래서 최근에는 건강수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수명은 아프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여기에는 각종 질병으로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기간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평균수명이 된다. 평균수명은 다른 말로 기대수명이라고도 한다. 이는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를 나타낸다.

물론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인 때도 있었다. 불과 몇 십 년 전의 일이다. 하루 세끼 식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시기다.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되기도 했다. 그 때는 평균수명이 길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르다. 소득이 늘어나고 여유시간이 많아졌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통계청의 2016년 생명표 자료에 따르면 국민 평균수명은 82.4세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3.2년 더 늘었다. 반면 하나의 질병도 갖지 않은 건강수명은 66.3세다. 평균수명이 16.1년 더 길다. 최근 들어서는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건강수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기간을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는 건강수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숲과 오름 등을 이용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한 삶 꾸준히 실천해야

이와 관련해 일본의 한 조사 결과가 흥미롭다. 하루 4,000보를 걷게 되면 우울증 위험이 줄어든다고, 6,000보 이상을 걸으면 치매가, 8,000보 이상을 걸으면 심혈관질환 위험이 줄어든다고 한다.

질병 없이 사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 모두가 건강수명을 늘리는 계획을 세워 실천해 보면 어떻게 생각해본다.



한 영 조

산림치유지도사

기고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사업 신청하세요



한 경 훈

구좌읍행정복지센터 생활환경팀장

제주시에서는 제주 전래의 화장실 문화를 개선해 주민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제주청정 환경이미지 관광환경 기반 조성 및 수질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20년 완료 목표로 저소득주민 등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매년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비하지 못한 485가구 정도가 남아 있다.

지역별로는 구좌읍 288가구, 한림읍 64가구, 초천읍 25

가구, 한경면 14가구, 우도면 1가구, 동지역 93가구로 대부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에 있는 지역들이다.

이 중에서 개선을 희망하는 가구는 286가구이며, 나머지 199가구는 저지대 및 공가, 건축주 미동의 등이 사유로 인해 사실상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저소득주민 등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에서는 이달 2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심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가구주는 보조금 지원을 받아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할 수가 있다. 정비지원 대상자 및 우선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 미관 저해, 관광지 주변, 환경오염 지역 가구, 수질오염, 보건위생, 악취 등이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순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저소득가구 우선으로 지원되며 동일순위인 경우에는 신청자 중에서 제일 연장자 순으로 지원 된다. 지원기준은 수세식 양변기, 절수형 위생 양변기 설치 가구에 대해 개소 당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가 있다.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가구주가 자부담을 해야 한다.

저소득주민 등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사업에 따른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에 지원을 받지 못 할 경우가 있으므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서는 이번 기회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사업을 신청하기를 바란다.

칼럼

말이 생각을 바꾼다

《한비자》에 나온다.

전국시대 초나라 때, 창과 방패를 함께 파는 상인이 거리에 나앉아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리하기 이를 데 없어 어떤 방패라도 꿰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패를 보세요. 이 방패의 견고함은 어떤 창이나 칼로도 꿰뚫지 못합니다.”고 한다. 지켜보던 사람이 “그러면 그 창으로 당신의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소?”라 하자, 상인이 한마디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한다.

어떤 방패도 꿰뚫는 창과 어떤 창도 막아내는 방패는 함께 할 수 없는 게 모순관계다. 있을 수 있듯이 말한 건 ‘모순율’을 어긴 것이다.

원래 ‘모순’이란 창 ‘모(矛)’와 방패 ‘순(盾)’이 결합한 것으로, 언행의 앞뒤가 맞지 않음을 뜻한다. 충무공이 120명의 수병과 12척의 전함으로 왜군 133척에 맞서 외친 말을 우리는 기억한다. “必死即生 必生即死 (죽기를 각오하면 살 길이 열리고 살 길을 먼저 생각하면 죽느니라.) 이어진 말이 “자, 전열을 갖추고 출격하라!” 명량대첩은 그렇게 이뤄졌고, 왜군의 패퇴로 누란(累卵)의 위기에서 나라를 건졌다. ‘죽으려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 판은 모순 어법의 극치다. 하지만 이 말로 병사들을 충천케 했다.

SNS 속 극단적 혐오 표현 늘어

J 밀턴은 아담과 하와의 낙원상실의 대서사시 《실락원》에서 “당신의 옷자락은 어두우면서도 눈부시게 빛납니다.”고 하나님의 외모를 찬미했다. 하나님의 성스러운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SNS에 뜬 끔찍한 말에 놀랐다. “여기에 고양이 사료 주지 마. 잡히면 손목을 잘라 버린다.” 사진 속 문구,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에게 띄운 섬뜩한 경고다. 독을 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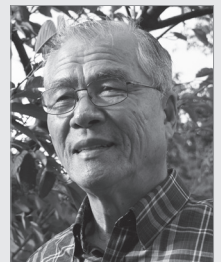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 ‘싫어요’가 들끓는다. 그게 단숨에 치 않아, ‘너무 싫으니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 달라’는 식의 극단적 혐오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난다.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싫다는 이유로 온라인을 통해 혐오감을 확산하는가 하면, 폭력·협박·살인으로 이어져 심각하다.

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나 창궐하다. 야생이 아니라 유해동물로 지정할 수도 없다.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게 그렇게 혐오스러운가. 고양이와 있어 쥐를 본 지 오래니 잊속도 있다. 경고문에 살벌해 가슴 쓸어내린다. ‘고양이를 너무 감싸면

새로운 피해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식의 모순 어법, 폭력적이 아닌 온화한 화법이면 좋을 것인데...

모순어법에도 힘이 있다. 말이 생각을 바꾼다.



김길웅

칼럼니스트

2019년도 제1차 제주사회복지포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임상치료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주최

“제주형 복지기준선 마련 절실”

도내외 사회복지 이슈와 관련된 흐름과 정보를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한 2019년도 제1차 제주사회복지포럼이 지난달 24일 이디야커피숍 한라수목원점에서 개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와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임상치료대학원 사회복지학과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책위원회(위원장 양창오)가 주관한 이 날 포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 ‘2019년도 제주 사회복지 예산 톺아보기’를 주제로 제주도 사회복지예산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계의 과제를 제시했다. 포럼내용을 요약하여 실는다.<편집자 주>

고현수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바라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예산 현황과 과제를 가감 없이 풀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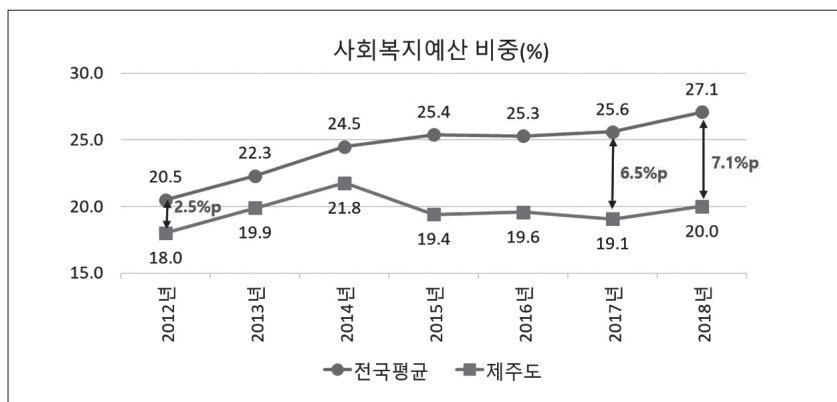
고 위원장은 “제주도의 지난해 예산은 2012년 대비 64%가 증가했다”라며 “같은 기간 전국 지자체 예산이 39%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해 큰 수치다. 이러한 원인은 교부세와 세외수입에 비해 지방세 증가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률은 전국 평균 대비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2017년도 신규 신청자의 탈락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2018년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일반+특별)은 20.0%로 전국평균인 27.1%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2012년도부터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고 위원장은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보장 비중이 2012년 29.8%에서 2019년 15.4%로 줄어 들었다. 국가의무부담율이 높은 기초연금 등의 편성 이유도 있겠으나 별개의 제주도 재정이 투입되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예산은 답보, 후퇴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예산 재원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국비와 도비 매칭 비중이 8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64.5%까지 줄어들면서 자체재원 비중은 2012년 14%에서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료(2019)

2019년 36%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20%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매칭 기준이 국비대비 도비 6:4에서 4:6으로 역전됐다”라며 “자체재원 비중 증가는 국비 비중 감소분을 보전하는 수준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 위원장은 또한 커뮤니티케어,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선제적 자체 예산투입은 미흡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언했다.

기초연금 신규신청자 탈락률 전국 최고 수준 사회복지예산 비율 중 사회안전망 예산 미흡

으로 5대 돌봄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별개의 자체투자라기 보다 매칭의 지방비 부담 سنگ를 강하게 띄고 있다”고 피력했다.

2019년 사회복지예산 증액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국비사업의 경우 기초연금, 활동지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아동수당 등인 반면, 도 자체사업은 대부분이 건물 신축, 장비보강 등 하드웨어 확충에 치중되어 도민의 보편적 삶의

먼저 제주형 주거정책,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기초연금 제외 등 도민 복지기준선 수립을 통한 복지예산을 계획성 있게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민의 적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제주형 복지기준선’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복지기금은 복지제도의 사각에 있는 저소득층과 소

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지만 2019년도 제주도 복권기금 1125억6700만원 중 복지예산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에 12억8500만원(1.14%)이 유일하다”며 “복권기금 사업이 대중교통, 응자지원, 해녀 잠수 질병 진료비 지원으로 주로 편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직접 복지 예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복지예산 중 주민참여예산 확보 ▲사회복지 예산결산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필요 ▲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제언 필요 등을 제언했다.

발제 이후 “복지예산을 살펴보면 수년 전에는 필요한 예산이었지만 이후 인프라가 갖춰지고 제도가 마련되어 예산투입이 필요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효율적인 편성을 해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고 위원장은 “그런 이유로 인해 예산분석능력과 모니터링 과정 등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계에서도 예산을 분석하는 전문성을 키워 적극적으로 문제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도의회에서도 예·결산 심의 전에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의무화하려 하고 있다. 공청회를 통해 사회복지계 의견이 전달되고 수렴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지난달 24일 이디야커피숍 한라수목원점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제주사회복지포럼’에서 고현수 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한 후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제9대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고관용 교수 인터뷰

☞ 관련기사 1면



“봉사는 뗄 수 없는 삶의 일부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제주의 나눔 온기를 한껏 드높이는 이가 있다. 바로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제9대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고관용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고 교수를 만나 등재 소감과 앞으로의 나눔 계획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41년간 복지 향상 매진 장애인 평생교육 주력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이 바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에요”

어릴 적부터 꾸준한 봉사 활동으로 국민훈장까지 받으셨던 아버지를 보고 자란 고관용 제주한라대학교 교수에게 봉사활동이란 뗄 수 없는 삶의 일부다.

고 교수는 멈춤 없는 나눔 실천으로 지난달 15일 ‘제9대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고 교수는 지난 1977년 청소년적십자(RCY) 봉사 활

동을 시작으로 대한적십자 제주북부지구회장, 대한적십자사 한아름적십자봉사회 회장,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법무부 소년보호 위원회 수석부회장,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중앙위원 등 41년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교수이기 이전에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주지역에 따뜻한 나눔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특히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장으로서 일천여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장애인 나들이 봉사, 밀반찬 배달, 이·미용 등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힘쓰는 등 장애인 권익 옹호 및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고 교수는 “장애인 복지는 시각·청각·지체·발달 장애 등 장애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힘들고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그만큼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장애 유형별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제자로 만나 졸업할 때까지 지도한 북한이탈

주민들과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물심양면 도와주는 등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 또 (사)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 교수는 “장애인

들을 위한 평생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장애인들이 자신이 역량에 따라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2018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봉사활동 사례 발표

봉사활동 하는 삶을 모토로...



고 미 영
작은세상봉사단

4년전 이맘때쯤 나이에서 어떤 자세로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 고민의 시발점에는 친정할머니가 투병하셨을 때 호스피스병동을 드나들며 보았던 간호사분들의 모습 성당에서 장례준비를 할 때 친분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해주시던 봉사자

분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미흡하지만 타인을 위해 보탬이 되는 무언가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모토로 하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실천으로 ‘작은세상’이라는 봉사단체에 발을 내딛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40이라는 나이에서 삶의 방향 변화

가 정착되어 생활화 될 수 있었던 건 그건 아마도 작은세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요즈음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처음의 마음가짐과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저 묵묵히 표나지 않게 해야지라는 마음가짐과는 달리 봉사활동의 횟수가 늘어가고 봉사단체의 소속감이 강해질수록 나도 모르게 큰소리를 내거나 투덜대는 등 자꾸 변질되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 속상하고 내가 왜 이러지라는 부끄러움과 반성을 하게 된다.

늘 겸손해지자 흔히들 하는말로 나대지 말자 라는 말을 되씹으며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봉사의 삶이 늘 생활인 나 자신이 되기를 바래본다.

끝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며 마음을 함께해준 우리 작은세상봉사단 단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허 옥
손뜻모아봉사회

저는 손뜻모아봉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욕봉사는 요양원에 있는 목욕실에서 2인 1조가 되어 한 명은 앞에서 한 명은 뒤에서 어르신들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목욕봉사를 하게 된지도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10년이라는 봉사활동 기간동안 제가 기억하는 많

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깊이 남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남성 어르신 목욕봉사를 하던 중 굉장히 몸이 허약해 보이는 분을 목욕 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 어르신을 부축하고 뒤에서 등을 닦아드리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힘없이 제 팔에서 빠져나가

시뭇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다급히 같이 봉사하시는 회원님께 의자에 앉히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날 목욕은 마쳤지만 그 다음 목욕봉사는 그 어르신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그 목욕이 마지막이었고 보름 뒤에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목욕봉사를 하면서 ‘큰 도움은 되지 못하지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목욕봉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인권침해라는 법 테두리 안에 가로막혀 아까 말씀드렸던 제 기억 속 어르신처럼 정작 목욕봉사가 필요하신 분들이 목욕봉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목욕봉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봉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인권침해 기준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